

2021 지역살리기프로젝트 ‘방방곳곳: 지역아-음’ 시상식 개최



▲ 2021 지역살리기프로젝트 ‘방방곳곳:지역아-음’ 제작지원자 단체사진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맹찬호 상임이사, 홈앤쇼핑 김옥찬 대표이사,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김동민 이사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진경 국장, 방방곳곳:지역아-음 제작지원자)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사장 김동민)이 주최하고 홈앤쇼핑이 후원하는 ‘2021 지역살리기프로젝트 <방방곳곳:지역아-음>’ 시상식이 12월 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감염증(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 준수하에 진행됐다.

지역살리기프로젝트 <방방곳곳:지역아-음>은 지역의 삶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이야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이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홈앤쇼핑 후원으로 지역살리기프로젝트 <방방곳곳:지역아-음>과 <방송 콘

텐츠 규제 및 정책환경에 대한 전문가 및 소비자 인식연구>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등 올해 총 1억 7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다.

<방방곳곳:지역이-음>은 기획심사를 통해 18개의 팀을 선정했으며, 총 6천 5백만원의 제작지원비를 팀별로 차등 제작지원했다. 약 3개월 동안 총 54편의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 이 중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을 선정해 우수콘텐츠 시상금 총 1천 8백만원을 전달했다.

우수콘텐츠를 심사한 심사위원들은 소상공인을 주인공으로 한 인간미 있는 스토리와 지역색을 담은 영상미에 재미 요소를 더한 참신한 콘텐츠들이 많았으며, 기획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대상을 수상한 채널명 ‘프로젝트퀘스천’은 환경에 진심인 M세대 찐친이 모여 제주에서 펼치는 제로웨이스트 여행 콘텐츠로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올웨이즈뮤직’은 싱어송라이터가 서울 문래동 골목, 을지로3가 골목, 수원 화성행궁 골목길에서 보고 느낀 감동과 공감을 음악 버스킹으로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수상했으며, 우수상의 ‘퀵앤슬로우’는 강원 무형문화재 장인들을 만나 천연도료 옷, 붓, 방짜 수저를 만든 이야기와 장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수상했다. <방방곳곳:지역이-음> 1인 미디어 콘텐츠 54편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TV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